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간 김 석 일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신 문 사
전화 용 7128 (직통)
무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두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동록번호 제다 253호)

제 2 8 3 호
<순간>
1979년
6월1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확인 1955년 4 월 1 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현행 제2지망제 시행 보류될듯

성과컸으나 시행 1년만에 문제점 노정돼

내년 신입생입시, 전과목 균형위해 영어 배점줄어

○……본대학은 금년 신입생 입시에 채택했던 제 2 지망제를 내년부터 일단 보류할 것을 검토중인것○
○……으로 알려졌다. 입시관리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지난 9일 결의된 내년도 입시요항의 시안은오○
○……는 2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의 회부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입시관리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따르면 먼저 2 부대학의 외산업체근무자와 실업계 동계 진학자는 종전의 특별전형에의한 협약방안을 변경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필답시험을 거쳐 그 성적에 의한 정원의 50%이내에서 선발한다.

시행 1 년만에 제 2 지망제 실시를 내년부터 보류케되는 이유로서, 당초 우수학생유치를 의도한 제 2 지망제는 금년도 입시에서 각 학과의 의원 반액인 성적향상과 함께 비교적 균등한 성적분포를 나타내는 등 본래의 취지에부합된 바도 적지않으나 실시과정에서 시험관리의 복잡화 커트라인의 결정등 행정상의 복잡성과함께 제 2 지망으로써 정원 소속학과에서의 학습의욕부진등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노출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제도는 본대학이 리기로의 이행등 입시제도자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입시에서 필답고사로 부과하고 있는 과목의 배점은 국어와 수학이 각기 100점, 영어가 150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영어의 배점이 130점 만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본대학이 외국어중심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과목보다 많은 배점비율을 영어에 부여하여온 것이나 이번 시작목총점은 330점으로 이는 에서 340점을 합한 입시총점 670점중 49·25%의 비율을차지하게 된다.

한편 3 학년 편입학은 종전대로 허가하지않을 예정이다.

언어실습회화만 당겨져

——기말고사일정 변동없어

기말고사 7월2일부터

1 학기 기말고사가 당초학사일정대로 7 월 2 일부터 10 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언어실습및 회화시험은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해당과목의 날짜및 시간에 맞추어 실시되고 일반교과목은 7 월 2 일부터 시작된다.

세민제 3년 2년 단위로

올해 행사 문제점 보완 위해

현재 저년제로 개최합을원칙으로 하고있는 세계민속예술제가 앞으로는 3 년과 2 년단위로 개최될것으로 발표됐다.

이날초 학생지도 소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될 이개정안은 금년 제 6 회 세민제를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재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재의 다양화를 기하며, 예산확보의 방안을 보완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산확보를위해서 금년의 경우처럼 세종문화회관등의 특정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에 비롯의 일부는 외부에 관매키로 하는방식을 채택할수 있으며 본대학에서 기념행사를 5 년단위로 개최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저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세민제를 3 년과 2 년단위로 개최하면서 5 년제행사를 중점적으로 기념행사화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호국단 부서간부 임기 6개월로

내년 부터 한 학년 단위 활동

79학년도 제 2 학기 학도호국단 부서간부의 임기가 금년에 한해 6 개월로 단축 조정되었다. 75년도에 창설되어 4 대째를 지나 5 대째에 들어선 학도호국단은 매년 3 학년 2 학기부터 이듬해 4 학년 1 학기의 1 년단위로 학도호국단의 연대장및 부서간부들이 임기를 맡아왔는데 그동안 학년이 들로 나뉘지는데에 대한 불합리성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지난 6 월초 열린 학생지도 소위원회 (위원장 · 안병만학생처장)의 결정에 따르면 금 2 학기에 임기가 시작되는 학도호국단 부서간부는 79년 9 월 1 일부터 80년 2 월21일까지 올해 2 학기및 내년 방학중의 행사를 맡게된다.

제5회 언어학 학술발표회 개최

개교 25주년 기념, 언어연구소 주최

본대학 부설 언어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 5 회 언어학 학술발표회가 지난 9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시청각교육원 장당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 회 개최되는 이 학술발표회는 올해로써 5 번째를 맞이했는데 금년에는 본대학 개교2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것이다.

사계의 二권준가및 교수, 내외기자, 학생다수가 참석한가운데 심포지움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는 3 부로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 박순함 언어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최완복 학장의 격려사에 이어 1 부에서는 본대학 공동언표자의 「문법설의 정도」, 서강대 이익표교수의 「경년분법학과의 역사적 재평가」 그리고 박명서교수의 「문화권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 이라는 주제하에 발표가 있었다.

2 부에서는 「언어유형학의 가치에 대한 재고」 라는주제하에 안연복교수 (고려대) 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진행된 3 부에서는 양민평교수의 「한국어 문미경어법의 고찰」, 박남식교수(서울대) 의 「언어기준에 있어서의 거리개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본대학 시청각교육원에서 개최된 언어학 슬라이드가 지난 9 일부 10일 양일간 부원 버클레코장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9일 시청각교육원에서 개최된 언어학 슬라이드 관람

학장배 탈 테니스대회 개최

14일 입장식, 16일까지

제 7 회 학장배 정릉 테니스대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3 일간 학내 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된다.

테니스를 통하여 체력을연마하고 단체의식과협력의식을 함양하여 대인으로서의 교양확립에 기여키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예년과 달리 교직원및교수부가 빠지고 학생부만 참가하여 남자는 단 · 복식, 여자는 단식경기를 갖게된다.

각 종목 우승, 준우승자에게 트로피가 수여되는 이번 경기는 대한 테니스협회의경기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14일 오후 1 시에 입장식이있을 예정이다.

여학생 MT 개최

참가인원 적어

제 3 회 여학생 멤버쉽 트레이닝이 지난 9 일부터 10일까지 1 박 2 일간 서울대학교 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여학생들의 친목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해 의의등을 고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M.T 의 참가자는 당초 모집예정인원보다 현저히 부족한 40명에 머물렀다.

매년 개최되는 여학생M.T 는 6 명씩 조를 짜서 신청해야만 하는 참가방법이 참가인원 감소의 간접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수영강습개최

동대문 수영학원서

수영반에서는 지난 8 일부터 동대문 수영학원에서 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회를 열고 있다.

8일, 병영 입소생 위문

입소생, 오는 12일 귀교 예정

대학생의 전력화로 국가방위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병영집체훈련의 1 학년 교련교육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 일부터 분무대에서 실시되고 있다.

종래와 달리 에비력 학생이 불참하고 2 부대 학생과 차년생에 미입소한 2 , 3 학년생 16명을 포함한 병영훈련 참가자 960명은 지난 3 일오전10시 30분 본대학 교정에서 입소신고서를 가졌다.

입소식은 4 일 오전 10시 분무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이자리에는 본대학 최완복 학장을 비롯하여 안병만 학생처장등 다수 교수고직원및 학군단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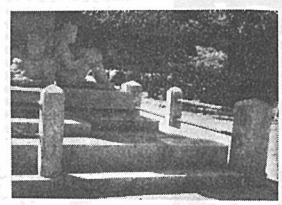
본대학에서는 이를 입소생들에 대한 위문행사를 지난 8 일 오후 4 시 안병만 학생처장과 각 학과 과장및 각학과 대표, 학군단 관계자등 다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약 30분간 배푼 위문행사에 참가한 위문단은 본대학 전 입소생에게 음료를 비롯한 약간의 다과를 전달하고 입소생들을 격려한후 돌아왔다. 입소생들은 오는 12 일 귀교하게 된다.

어문춘추

발전을 위한 비판이 창조적인 미래를 지향한 것임을 전제로 할때 대학내의 비판의 소리는 마땅히 개선이따는 반대급부를 들려받아야 할것이다. 따져 없어진 철폐으로 비롯된 변화가 무관심의 정체화(停滯化)를 방고있다. 진보에의 동인(動因)인 부단한 자기성찰이 언제까지 무시될 것인가.

<철책 일부가 따온된 상징탑>



학술

▲입시에 제 2 지망제 보류결정이라고.
—한해 시행으로 어찌할 것이소. 종합적인 모란게 있을법도 한데.
▲차기 호국단 부서간부 임기 6개월로.
—1 년 할일 6 개월로 줄였으니 좌은하게들 하시도록.

바로잡음

본보 6 월 1 일자 1 면의 세민제경비관계기사중 마란비 47만 8 천원은 417만 8 천원으로, 4 기합해 967만원은 97만원으로 바로잡으며 서어클관계기사의 「헤드볼대회」항목중「27개」이하가 다른내용으로 오기(誤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내

제17회 외대문학상 현상모집

6월 13일로 연기, 작품마감 박두

본사에서 모집하는 제 17회 외대문학상 작품마감이 당초를 인상한 가운데 13일로 박두 하였습니다. 제정이래 17년의 연조을 기업하면서 기성문단에 즐즐한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바 있는 본상은 외대인의 문학동호를 진작시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건학 25주년을 맞는 올해, 외대인 여러분의 문학적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될 본상에 많은 응모있기를 바랍니다.

모집부문및상금 : 시 (2편 이상) 5만원 기한 : 79년6월13일
소설 (60매 내외) 9만원 심사위원 : 추후 발표
평론 (50매 내외) 6만원 당선작발표 : 6 월21일자 외대학보
번역 (50매 내외) 5만원
접수처 : 외대신문사 (학생회관 309.311호)

79년 6월

외 대 신 문 사

교육 혁명과 교육의 대중화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항 (후년)

1979 학년도 후기

1. 모집과정 및 모집학과
2. 응시자격
3. 시험
4. 제출서류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6. 입학시험 과목 및 일시
7. 합격자 발표
8. 지원서 다음 및 수업료
9. 장학금
10. 기타

1979年度 後期

貿易大學院 學生 募集要項 (夜間)

1. 募集學科別 및 募集人員
2. 應募資格
3. 試驗科目
4. 提出書類
5. 志願書 交付 및 接受期間
6. 受驗票 交付 및 留意事項 傳達
7. 試驗日時 및 場所
8. 合格者發表
9. 志願書 代金 및 受驗料
10. 特典
11. 其他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里門洞 270番地
韓國外國語大學
電話 直通 ㊫ 7118 交換 ㊫ 1810~19

쏘련의 근대화와 반체제운동의 유형

Ⅰ. 머릿말

우리에겐 멀고 먼 나라 쏘련에서의 반체제 운동에 관한 소식들이 흥미를 끈지 이미 오래다. 강력한 통제체제하에서 반체제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사실이 우리의 호기심을 고조시키는지도 모른다.

아울런 반체제운동이 공산체제내에서 다원주의(pluralism)정향을 상징할지도 모르며, 이 운동이 때로는 국가간에 정치통정의 매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반체제운동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체제내의 변수로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산체제내의 변화」라는 가정을 뒷받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근대화와 반체제운동

작가및 예술가, 학자, 유태계 쏘련인 「발틱」 3공화국을 위시한 비 「러시아」 민족과 신생 자유노동조합운동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쏘련의 반체제운동은 발전함에 따라 문명률은 낮아지고, 교육기회가 많아지며, 숙련 노동자가 동장하고, 전문가의 지위가 향상되며, 관료 및 기타조직이 발달된다.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조직, 기관을 은 각각 자율의 배분 비율이 증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그 결과 다원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성립된다.

근대화의 속성인 다원적 경향은 공산체제내의 반체제 운동의 향구성 방법및 그 목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유산위에 성립된 반체제운동의 향구성, 투쟁방법, 목적이 근대화에 의해 새롭게 방향지워지는 것이다.

1. 반체제 운동의 향구성

근대화가 반체제 운동의 향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기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사회적 분화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엘리트 층임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계급에 참가한다. 경제는도시패거층의유지라는 제 2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이념에 대한 경쟁은 어떻게 정치권력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탈린」 격하운동은 소련 경제의 계속적인 발전과 당면한 중앙집권적 통제사이에 근본적 긴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소련지도자들이 인정한 사건으로 풀이할수 있다. 그 이후 소련지도자들은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자유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된 「스탈린」 노선을 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항상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다른 형태의 지배계층내의 분열이 존재하고 있으나, 당관료와 과학문화 「인텔리겐챠」 사이의 의견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관료 엘리트는 경제를 비롯 사회 전반의 합리적 발전을 분산시키는 한편 정치를 요구하는 한편 당과 정부관료들은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근대화가 공산체제내의 반체제운동의 향구성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경제적 분화가 일어나고 조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3. 반대의 목표

시대상황이 반대의 목표를 규정한다.

1956년 까지만 해도 반체제운동의 목표는 「스탈린」 식 정치체제를 포기케 하는 것이었다. 그 체제를전설한 근본개념은 문제시되지 않았었다.

1956년 이후 변경할 수 없는 역사적 진보를 위해 정당화된 「스탈린」 식 정치체제의 근본개념의 문제를 꺼, 재산 공동 소유의 식, 노동계급의 주도력할에 대한 도전이 제기 되었다.

소와는 왜 발생했는가?

사회주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체제를 내부로 부터 변혁, 합리화하여 주 (使) 산업시대로 들입해할 필요성이 오구되었던 것이다.

근대화는 소련 반체제운동의 목표정향 (goal orientation) 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킨다. 「스탈린」 식으로 멀어 그 효용을 입어가는 현 소련사회에서 19세기적 개념의 「도그마」는 포기되었고, 과학의 시대 20세기인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대적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의미는 재형성되었다.

김 현 택

여기서 반체제운동은 「공식적인 목표 수단에 반대하는 공공연한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정부당국에 의해 기본규범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소련의 반체제운동을 제정 「러시아」 전통의 계속성의 표출임을 보았듯이 앞 이해될수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1965년 이후부터 현 지까지로 기간을 한정하기로 한다. 1965년 작가 「다니엘」 과 「시나프스키」에 대한 재판으로 막을 연 「브리즈네프」 시대의 반체제운동의 전개를 살피는 것이 이논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왕시에 주로 정치적 관심에서 근대화와 반체제운동의 관계를 구명할 것이며, 대표적 반체제운동가들의 사상을 약술할 것이다.

Ⅲ. 반체제 운동의 전개

소련 반체제 운동의 모든 양상을 종합 유형화하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각 「그룹」 내에서도 개인마다 포함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체제 운동가들의 공통 상황은 생활수가 「고바로프」 를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 「넴비스트」 「모스고바」 지부, 「진즈버그」 가 주도하는 「솔제니프인」 기금 활동가 「그룹」, 「사하로프」 「그룹」, 「오룔로프」를 위원장으로하는 「쉽상키」신인 수형장식 「그룹」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련 반체제 운동을 하는 점에서는 「사하로프」도 「솔제니프인」 과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사하로프」는 오늘날 쏘련의 피압박 대중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유를 근간으로하는 서방세계의 가치및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68년 그의 명성을 얻게한 「진보, 평화공존및 지적인 자유」라는 논문에서는 군비경쟁의 중식, 비밀투, 사회주의 체제의 수렴을 옹호하고 나섰다.

쏘련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방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그는 「솔제니프인」과 날카롭게 대립한다.

「사하로프」와 「솔제니프인」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외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쏘련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급진적 반체제 운동가로 평가될 수 있다.

3. 순수 「마르크스」 주의자

역사학자 「토이 메드베제프」는 특이한 반체제 운동가이다.

「솔제니프인」 의 「수용소군도」 보다 2년 먼저 서방세계에서 발간된 「스탈린」 체제의 경찰국가에 대한 면밀한 학문적 고발을 「역사로 하여금 판단케하라」 (Let History Judge) 에서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기는 하나 현 쏘련정권이 순수한 「맑스·레닌」 주의로부터 이탈하였기 때문에 기존사회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쓰고 있다.

그는 심층주의자인 데드에 점진주의자이다. 「메드베제프」는 평창한 당기구 세력의 축소 「유고」 식의 노선을 보다 세련화 해갈것으로 전망된다.

Ⅳ. 맺는말

근대화는 쏘련 반체제운동의 변화와 상호 연관되고 있다. 이는 「스탈린」 사 후 이데올로기의 비판과정, 정치적 테러의 쇠퇴, 당 통치력의 한계와 동으로 특징지워지는 「쏘련체제내의 변화」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요약하면,

첫째, 근대화는 이익의 구조적 분화를 통해 쏘련의 반체제 운동에 향구적 조직기반을 제공했으며,

둘째,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치적 기술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 반체제 운동의 방법및 그 내용에 향구적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셋째, 반체제 운동의 목표는 합리화 재편성으로 전망된다.

반항이 격다고 해서 항아에 꼭 필요 의지는 소리의 존재이유가 부인될순없다.

<대학원·동구지역연구학과>

사설

호국학도의 사명

—병영집체 훈련에 붙여—

지난 76년에 시작된 병영집체 훈련이 올해로 4차년도를 맞이하여, 6월3일 입학년 남학생 재학생 전원이 입소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히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된 학생이 이 훈련에서 제외되고, 그러한 군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발표로 교련학점을 취득토록 조처한 것이다.

입소학생들은 6월3일 오후, 2진으로 나뉘어 본부대에 들어갔고, 4일에는 입소하므로 정년한 입소식을 거쳐 10일간의 병영훈련에 돌입한 것이다. 입학부모의 효령복을 단정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개인장비로 무장한 젊은이들은 입소식에서부터 이미 늠름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8일 17시에는 국기하강식을 엄한 분위 경건을 방인사 있었는데, 불과 5일간의 병영생활의 경과로서 저보를 뚜렷하게 군인다운 보무를 익혔는가 하는만큼 필도 있는 거룬과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어 위문차 방문한 교수와 학생들을 감동케 하였다. 아직도 가정에서는 응석의 때를 벗지못한 20안쪽의 젊은이오, 그간 입거운입시의 관문을 거친지 불과 몇달 안되는 학생들이다. 대학의 울타에 들어와서는 젊음을 앞세워 갖가지 모임에서 목청을 돋우고 낭만이라는 물결에 실려 부넣기에 영일이 없던 사방활동전만 일단 준복으로 단장을 시켜놓고보니 어엿한 나라의 방패들이었다. 참으로 마입기 이루데 없는 젊은이의 위용이라고 하여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 병영집체교육은 대학 1학년 일반문사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며, 평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련교육의 연장인 것이다. 다만 학교교정이 아닌 병영이라는 야별 (野訳) 의 편장에서 정규군인과 똑같은 군들을 른수하며, 내무반생활을 통해서 합동 동은 일체감과 전우애를 기르면서 다함께 전투기방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같은 병영훈련의 당위는 무릎할 것없이 대학생의 전력화 (戰力化) 라는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가민족의 소명에 귀결하는 것이다. 문교부에서 시달된 오강곤, 그동적실정을 보면 첫째가 국가방위능력의 증대요, 둘째가 안보의식의 강화및전승통계계승의 확립, 셋째가 심심단결심및 지도력인 인격도야를 들고있다.

우리는 지금 힘의 균형으로 지탱되는 불안한 평화 속에 살고 있다. 지구상의 어느 구석을 더듬어 보든지 사생결단으로 버르는 동족과 불과 몇리 안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마치는 앞아볼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이야기 하자 장년의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전 전방을 위문하는 길에 어느 꼬부 지휘관의 조용 조용한 한마디가 생각난다. 그는 「명령만 있으면 나의 조명 한 마디로 일본인에 수십만명의 포로이 복으로 넣을수 있다. 그러나 저들은 그보다 더한 희생을 들이대고 있는지도 모르죠. 」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 전에 종족의 멸망을 자초할 상황을 예측한단 말이고. 단단한 대비와 청신의 투장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이것만이 국가 방위의 유일한 길이며 평화유지의 방책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군사훈련의 목적에서 기본적 목표로 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지금의 상황이란 가상적이 아니라 총성이 안들리는 전쟁중에 살을 지탱하고있다고 할만한 명분인 것을 다시 상기해야겠다. 나의 조국 나의 생명은 나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모름지기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다가 긴장된 상황에서의 병영생활로 심신의 피로를 크게 느끼게 되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국방의 의무로 주어질 기히지 않고 본인의 장래하는 장병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그처럼 자유롭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지도력인 인격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머칠 남지 않은 과정을 중실히 이수하여, 건장하고 명랑한 얼굴로 귀교하여 수학에 일하여 주기를 당부한며, 입소훈련의 책임하지에 애써준 관계 부처와 학군단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근대화는 반체제의 명분론

공산체제 : 특정사회에서 생존하는

하나의 체제로이해 : 학자입장

◆사진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 제정 러시아시대부터 국가적인 대집회를 자주 갖곤 하였다.

솔제니찐의 「범 슬라브 주의」는 구러시아정교로 귀의를 뜻해

사하로프 쏘련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서방의힘 빌려야

순수 「맑스·레닌」 주의를 주장하는 점진주의자 메드베제프

미니상식

▲저인이나 큰인이란 사리에 꼭 들어맞아 필요한 말로 속담이나 경구 (警句) 와같이 우리네 세상살이를 슬바로게 이끄는 진리로알려져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길

▲저인이나 큰인이란 사리에 꼭 들어맞아 필요한 말로 속담이나 경구 (警句) 와같이 우리네 세상살이를 슬바로게 이끄는 진리로알려져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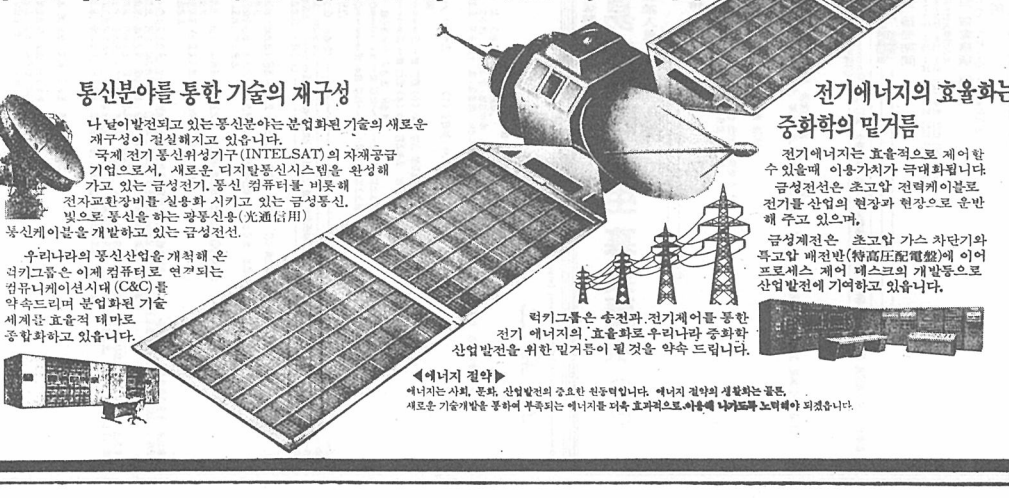
길

▲속담을 제외하면 이렇듯 친밀의 진리를 담은 말들은 예로부터 생진외업무와 경륜 (功績) 을 루세에 남긴 성인과 위인들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많다. 그래서 사람은 이를 귀감으로 아고사람을 훈계하고 옳고 인들은 성서와 경전등의 잠언 (箴言) 을 암송할 정도로 되새기는 외에 혹자는 이를 좌우명으로 하여 작기 수신 (修身) 과 처세 (處世) 의 근본으로 삼아오곤 했다.

◀사하로프 박사 부인 엘레나 보네르 여사

럭키그룹의 젊을 펼쳐본다 – 통신, 전기

통신과 전기분야의 미래 기술을 개척하는 럭키그룹



럭키그룹

금성電線株式會社
(전력, 통신용전선 및 케이블)
金星通信株式會社
(교환기 및 무선통신기기)
金星電氣株式會社
(반송기기및 무선통신기기)
金星計電株式會社
(산업용 전기기기 및 계측기)
株式會社럭키
(석탄원, 화학소재품, 무기재품, 석탄화학)
半島商事株式會社
(종합무역상사)
株式會社金星社
(가정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럭키콘티넨탈카본(株)
(탄이어용 각종 고무제품 및 카본 블랙)
럭키石油化學株式會社
(석유화학 원료제품 및 무역업무)
럭키플리케미칼(株)
(가정용 종이제품)
럭키엔지니어링(株)
(플랜트업 등록업)
湖南精油株式會社
(윤활유 및 석유시설)
韓國鋁業製鍊株式會社
(알, 은, 동, 합, 계판)
汎韓生命火災保險(株)
(재해보험업)
株式會社國際新聞
(신문발행업)
釜山文化TV放送(株)
(TV방송업)
財団法人嘉庵文化財団
(장학 및 재정사업)
学校法人嘉庵学園
(인문계열사업준비중)

통신분야를 통한 기술의 재구성

나날이발전되고 있는통신분야는 분업화된 기술의 새로운 재구성이 결실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전기 통신위성기구 (INTELSAT) 의 자체공급 기업으로서, 새로운 디지탈통신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는 금성전기. 통신 컴퓨터를 비롯해 전자교환장비를 실용화 시키고 있는 금성통신. 빛으로 통신을 하는 광통신용 (光通信用) 통신케이블을 개발하고 있는 금성전선.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을 개척해 온 럭키그룹은 이제 컴퓨터로 연결되는 컴퓨니케이션시대 (C&C)를 약속드리며 분업화된 기술 세계는 효율적 태마로 종합화하고 있읍니다.

전기에너지의 효율화는 중화학의 밑거름

전기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때 이용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금성전선은 초고압 전력케이블로 전기를 산업의 현장과 현장으로 운반해 주고 있으며,

금성계전은 초고압 가스 차단기와 특고압 배전반(特高圧配電盤)에 이어 프로세스 제어 메스크의 개발등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럭키그룹은 송전과 전기제어를 통한 전기 에너지의 효율화로 우리나라 중화학 산업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것을 약속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는 사회, 문화, 산업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실현화는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부족되는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아용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 현장 진단

10시 등교이후 대학생 생활습관 변했다

◇대학외적인 정책결정의 여파는 대학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안겨주었다.

대체로 대학인 생활감각, 시간 관념 무디어져
일부학생은 실력배양의 호기로 이용하기도

도로율은 거우 산술적인 수준에 만족,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데에 비하여 차량과 교통인구는 급격히 팽창하자 서울시 당국에서는 그대책에 부심(腐心)한 끝에 궁여지책으로「출·퇴근 시차제」를 내세웠다. 물론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국영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소위 시차제가 시행되긴 하였으나 지난 4월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시차제야 말로 서울시의 거의 전 교통인구가 망라되는 점에서 특별히 기록돼야할 것이다. 이 시차제는 종전의 '것보다 대상을 폭넓게 잡고 이를 세분(細分)해 중고생이 9시, 국영기업체 및 일반기업체 사원이 8시30분, 그리고 대학생과 은행원이 10시까지 등교(출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이 시차제의 실시 전에 교통인구가 러시아워의 좁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서울시의 교통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시차제의 바로 그 시차(時差)로 말미암아 유관분야끼리의 효율적인 업무 연결·협조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었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예측한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전혀에 상반의 현상이 대학가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목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생활습관이 변하고 있다.』

이 말은 시차제 시행후 석달째에 접어드는 대학가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를에 따르면 종전 첫강의시간의 시작이 9시이면 때와는 달리 4월1일 이후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0시 등교로 인해 점진적으로 생활습관이 무절제해지고 생활감각이 무디어졌다는 지적이다.

▲허송(虛送)하는 1시간 그 여파

S군은 최근들어 늦잠으로인한 지각이 빈번하다. 공교롭게도 강의시간표가 아침 첫시간의 강의가 많게 되어 10시등교제 시행이전부터 아침 첫시간 강의가 든 과목은 학점까지 포기할 각오였던 S군의집은 학교에서 버스로 한 번만 타고도 1시간20분.

S군은 10시부터 첫강의가시작된 4월의 초반엔 여유있게(?)강의시간에 맞추어 등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시일이 경과하면서 9시에 수업이 시작되던 그때와 같은 「투지」가 상실되어간 탓인지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더우기 「10시 수업시작」을 믿는 탓으로 저녁에 학과 친구들과 밤늦도록 어울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 앞에서 술집을하는

P씨에 따르면『요즘엔 좀 틀하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기초에 비해(시차제 적용이전의 3월달을 가리키는 듯 하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H대의 정문 수위 K씨는 『아침 10시10분쯤을 전후해서도 강의실로 부리나케 달려가는 학생군(群)을 볼수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9시면 몰라도….』하고 사뭇 딱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는데 미상불 10시에 강의가 시작되는데도 지각생은 별로 줄어든 것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우기 지각하는 학생의 다수가 9시 등교때에도 그러하던 「낯익은」얼굴들이라는 귀띔이다.

별다른 일없이 아침시간을허송하는 경향이 특히심한 부류는 대학 1년생들 입학시험준비에 골몰하던 때에는 아침8시까지 등교하다가 졸지에 10시까지 등교하는「호시절」을맞아 쏟아진 여가 아닌 여가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이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생중엔 이 아침의 빈 시간을 악용, 일찍부터 몇몇「동호인」들끼리 모여「아침다마」를 하거나「마이티」,「포커」로 「머리회전 워밍업」을 하는 계층도 있었다.

▲『단 1시간도 알차게』대학가의 실속파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아침의 「틈」을 유효적절히 이용하는 학생도 많이 볼수있었다.

J군은 얼마전부터 시내 외국어학원에서 TOEFL을아침반으로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작 시간을 낼수 없어 마음뿐이었는데 시차제에 호기(好機)가 찾아왔다는 얘기다. J군에 따르면자기가 등록한 반에만도 비슷한 경우의 대학생이 대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타자학원, EDPS학원 등 자신의영역을 넓히려는 많은 노력을 10시등교로 얻어진 아침시간을 이용해 경주한다는 설명을 들려준다. 심지어 태권도, 수영등 신체 단련의 시간으로도 이를「선용」하는 경우도 찾아볼수 있었다.

▲진단

「10시 등교시대」를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학자체의 의도로 결정된것이 아니고 단지 서울시 교통난 대책의 하나로서 등장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볼 때 대학의 의사와 무관한 채 시행되는 이시차제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에게서 추출된 의향(意向)은 정책의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오는 무감각으로 극히 혼돈상태에 놓여있다는 인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서울시 교통난 해소에 왜 대학생을 끌어들이는가』란 D대 L군의 강변이나『10시 등교제가 한 일이란 학생를 늦잠재우기, 숙제베낄때 충분한 시간주기 같은 것뿐이다』란 M대 U군의 억지(?)따위를 다만 익살로만 받아 들일수는 없을것 같다. 그러나 모두가 무슨 항변을 하든 그보다 먼저 논의되어야 할 일은 단지강의 첫시간의시작이 9시에서 10시로 됐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악영향을 드러내야만 하는 대학인과 그들의 의식 발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성이다. 대학인들의 각성과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길화기자>

귤인가 탱자인가 외래와의 접목

제도와 인식의 정착을점검한다

애초에 이 기획의 의도가 해방이후를 중심으로우리 사회구조의 몇가지제도등에서 소위 국제적 문화이식(文化移植)에 대해 토착적 혹은 적응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일으킨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들을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비추어검토해 보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그 작업을 통해 우리나름의「발전」에 대한 개념설정을 시도해 보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다룰「사회」라는 부제에서도 당연히 발전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서술해 나가야할 것이다.

사회-근대화와 물량제일주의 역기능

물량제일주의, 질서의식빈곤 초래
서구사회근대화 속성 수용못해

근대화를 일단 서구화로 규정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근대화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60년대 전후로 잡을 수 있을 것같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 있어 근대화=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등식이 성립되어 꾸준히 그 등식을 만족시켜 나왔다.

여기서 근대화가 곧 서구화(서구와의 접목)인가 하는 문제와 근대화가 사회구조에 있어 경제제도의 발전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것은 논의밖의 일로서 일단 논외(論外)의 부분으로 돌릴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노정(露程)되고 있는 불합리 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파생되었는지를 부분적이나마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근대화란 의미가 경제성장 내지 경제발전의 의미로 이어져 내려 옴에 따라「물량(物量)적」인 경제발전이 확대되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물량적인 경제발전이 결국은 물량 제일주의(物量第一主義)라든가 황금만능주의를 배타할 속성을 함께 지녀 이러한 역기능을 제거치않고서는 근대화가 사회발전이라는 백락속으로 자연스럽게 용해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과정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밀접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뤄져온 것으로 볼때 미국적 생활양식이 그 과정에 있어 함께 흘러들어온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위 미국적 생활양식이 앞서의 물량제일주의나 황금만능주의라고 규정할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은 그들의 청교도적극기, 금욕, 질박(質朴)성을바탕으로 근대화와 사회발전을 도모해왔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볼때 우리사회에서 근대화의 중요한역기능이랄수 있는 물량제일주의는 결론적으로 전통적 생활기반과 조직적으로 통합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유리된 서구적 생활양식과 그 모순의 결과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량제일주의가 파급시키는 '몇가지 심각한 현상으로서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있어 질서의식의 취약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질서의식의 빈곤은 사회구조전반에 스며들어「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외에도 안일한 소시민적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층을 형성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한편, 기계주의로 인한 인간성소외, 정신문화의 타락, 사회전반에 대한 무관심등은 사회발전의 정체(停滯)요인으로서 모두 물량제일주의라는 전제와 분리해 생각할수 없는 요소들이라 할수 있겠다.

근대화를 서구화로 규정해 놓고 볼 때 근대화된 서구사회가 갖는 일반적 속성및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창조적 수용을 구현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고 본다.

우선 근대화된 서구 사회가 갖는 속성으로서 귀속적지위가 아닌 능력적지위가 지배하는 사회, 즉,능력본위사회에로의 접근이란 명확한 규범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 가치를 지양한 진정한 능력본위 사회에의 도달이 근대화과정을 통해아직「현실화」되어 있지 못함을 상정해 본다면 이것은「실현」해야 할 과제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겠다.

근대화와함께 전통적권위나 가치의 퇴색(몰락)이라는 역사적명제는「백성」이「국민」으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그러나 아직 전통적 권위체계에 바탕을 둔 요소들이 완전히 극복되어진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집체(集體)가 아닌 개체(個體)의 주체적 정립(定立)이란 전제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및 능력본위 사회에로의 접근이란 명제와함께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인간성소외라든가, 대중사회의 병리현상들이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또 그것이 요즘처럼 활발히 논의되는 때도 없는 것같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도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이식(移植)되어온 '외래이론이라면 오늘의 우리사회에대해 과연 무비판적으로 이론 논의의 도입과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하는 일도,「근대화」및「발전」이라는 일종의 가치함축적 어의(語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실한 과제로 보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강민기자>

양보심부터 호흡토록

○…지난 8일 1학년병영훈련위문날의 달갑잖은 해프닝 2제(題)

#1. 작년부터 위문인구의 폭주현상에다. 올해는 2부까지 포함돼 준비된 차량에 비해 위문단 수는 절대우위를 지켰는데.

새로 구입한 소형 스쿨버스까지 동원됐으나 버스는 버스대로 일대 초만원에다가 낙오한(?) 일부 학과대표들은 자비를 들여 문무대까지 택시를 타고 반갑잖은 출혈(出血)드라이브를 즐겼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편 번갯불에 콩튀기듯 짧은 위문시간의 틈을 내어 느긋하게「Valley 9」술잔을 기울이는 위문인사도 눈에 띄어 그「여유있음」에 크로니클자 감탄.

#2. 위문이 끝난후 귀교길엔 승차난의 극치를이뤄 대형스쿨버스가 두차례 왕복하는 곤욕을치르는가 하면 좌석문제로 버스안은 한때 오해와 혼란의 어수선한 분위기.

미리 위문단 인원을 파악해 통제치못한 주최측도 답답하려니와 복잡할 수록 질서와 양보심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소.

「세계를 호흡하는 훈산즈」질서와 양보심부터호흡하는것을 배우시도록.

○…며칠전 3학년 교련 각개전투시간엔 비가 한 두방울 떨어지는 것 같더니 이윽고 본격적으로 퍼붓기 시작.

한번 실습후 잘 되면 끝나겠다는 인자하신(?)교관님의 천명(闡明)에 힘입어 어느때보다 열심히 땅바닥을 기는 수중전(水中戰)을 감행하는 용기가곳곳에서 연출.

흙탕물로 뒤범벅이된 교련복을 닦으며 한번 포복으로 끝난 훈산즈, 이구동성으로『비가와도 좋고, 눈이와도 좋다. 화끈하게 이처럼만 늘 끝난다면야.』두번 화끈하면 흙탕물에 목욕을(?)….

○…미네르바에서 개최된 문학반의 시화전 개막테이프를 끊고 전시된 작품을살펴 본 최학장님.『전체적으로 요즘 학생들의 시가 어두운 감을 준다』고 촌평.

외대의 특성을 살려 외국시인들의 시풍도 참고하고 연구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助言)도 한 말씀.

이번 시화전을 통해 볼때 위와같은 지적외에, 본대학내 문학풍토의 저변확대도 중요한 과제임을 전 훈산즈 깨우치시도록.

○…수은주가 30도의 고지를향해 치닫기 시작하자 벌써 부터 더위를 먹은 탓인지 이곳저곳에서 학기초의 소담한 열기가 수그러든 징후가 발견돼.

녹음은 미네르바 동산의 동나무 전시장 모퉁이엔 처참한모습으로 나무가 꺾어져 있어 보는이의 심사를 어지럽히는데, 자연보호운동의 우렁찬 구호는 어딜 가고 상처만 남았나는 자탄.

전시장에 담뿍 머금어진 시향(詩香)으로도 새디스트의 광란(?)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

새디스트의 「광란」

개교 25주년, 발전을 위한 타진

(4) 캠퍼스 부지 확장방안 없나

그 방안은 무엇인가
종합대학화

차 례
1. 프롤로그
2. 선행조건인「학생복지」
3. 〃 「연구분위기」
4. 캠퍼스 부지 확장문제 타진
5. 이공대설치냐, 특수종합대학이냐
6. 종합대학에 대한 관심도「언론조사」
7. 관계 교수및 당국자와의 좌담

부지확장은 종합대학화의 시급한문제
대학발전 위한 기구설치요구돼

종합대학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지난호에서 살펴온 학생복지 문제와 교수의 연구분위기 실태는 그 제한하는 범위가 현 본대학 이란 캠퍼스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학의 내적(內的)인 충실도를 점검해 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금번 시리즈에서 다룰려고하는 문제는 대학의 양적팽창을위해서나, 종합대학화를 위한 외적인 선행조건의 하나로 제기될 캠퍼스부지 확장에 관한 시급한 문제를 타진해 보고자한다.

지난 5월1일자에서도부분적으로 밝힌바있지만 현 본대학의 총부지 3만평의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부분적인 부지확장은 거의 불가능한 한편 정원도 포화상태에 이른점을 고려해볼때 종합대학화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현상의 한계점은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할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캠퍼스 부지 확충은 물론, 서울시내에 부지를 확보, 현행 교육법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계의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본대학이 완전히 이전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한 방법의 실현에 대해서 한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본대학의 재단(財團)이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연(延)30만평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방법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문교부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더 이상의 증원(增員)은 물론, 증과(增科)도 어려운 실정.

이런점을 감안해볼때 종합대학화및 본대학의 규모 확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는 이미 타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분교(分校) 설치의 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분교설치에관한 대안도 사실상 학교측의 책임있는 관계자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 걸로알려졌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인가를 타진하기위해서 우선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에 독립된 분교(외국어학부 우선으로 이공학부포함)를 설치하는 방법일 것이다.

분교설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본대학의「후진화」를막기위해서라도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세워 학내우수「brain」이 참가하는「대학발전위원회」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재단측의 운영의 묘에서 찾아질수 있으리라 소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제기될 방안으로는 프롤로그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본대학이 제2의 캠퍼스가 들어설만한 부지에 분교를 설치한 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 행정기구나 2부대등은 현재의 캠퍼스에 두고 학부를 분교위치의 캠퍼스에 옮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이방안은 분교의 위치가 서울이나, 적어도 현재의 캠퍼스에서 한시간이내의 통학거리에 있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에 분교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으로 전체 대학을 완전 이전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분교설치 그자체에 의미를 두고있는 것이라면, 서울시내에 분교설치및 캠퍼스 확장이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종합대학을 위한 논의에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이공대(理工大)가 있는 지방이나, 서울의 타대학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종합대학화를 이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을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확대및 투자여부를 먼저 타진해 보아야 할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본대학 재단측의 주장은「재정의 합작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였다. 또 학교측에서도 통합하려는 학교의 질과 수준등을 고려해야만하고 학내외적인 여론에 가장큰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대체적으로 살펴본 종합대학화의 선행조건으로서의 부지확장에 따른 분교설치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리즈에서 살펴볼 특수종합대학의 설립 여부와의 논의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되겠지만 분교설치에 관한한 이공대 설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한 관계자는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인것만은 대체로 분명한 것 같다.

◇종합대학을 염두에 두지않더라도 현 캠퍼스의 포화상태는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요컨대 캠퍼스부지 확장에 따른 제문제는 재단측과 실무자사이의 유기적인 협조를 전제로 학내외의여론을 주시하는 한편, 대학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각분야에 관한 철저한 계획안(計劃案)이 먼저, 작성되어야만할것이다.

<기획부>

129,600명이 동시에 통화하는 통신케이블도 만듭니다.

전화공사장에서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름은 「표준동축케이블」이라 하며 커다란 바퀴(Drum)에 감겨 있습니다.

굵은 이케이블 하나로는 64,800채널, 송수화자를 합하면 동시에 129,600명이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통신 케이블 기술의 첨단입니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중요성과 통신이 주는 편리함을 생각할 때 결코 기술의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성전선에서는 전자,전기, 기계, 금속, 물리, 화학등 각분야의 젊은 엘리트들이 모여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보람있는 땀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을 한데 모아, 금성전선은 국제통신용 해저케이블, 초고압송전용 알미늄전선, 불에 타지 않는 소방용 전선, 마그네트선등을 생산하고, 경이적인 광통신용 유리섬유를 개발하는등, 통신케이블과 전력케이블에 전문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금성전선주식회사
Gold Star Cable Co., Ltd.
서울특별시중구양동282 전화 (22) 3151~5, (28) 0725, (28) 0836

현대음악의 개척자「이골·스트라빈스키」

시대속의 인물 7파상 시리이즈⑤

한 상 우

창작으로 말년의어려움극복해
「바하로 돌아가자」신고전주의에 전향
그의 개성미 현대음악에 고루 영향끼쳐

「바하로 돌아가자」라는말로 집약되는 투철한 음악정이「이골 -스트라빈스키」는 1882년에 태어나 197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서양음악사에 큰 발자국을남긴 위대한 예술가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눈을 감았고 지금은 이태리에 묻히어 있는 스트라빈스키는 현대음악을반석위에 올려 놓은 공로자일뿐 아니라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나간 강한 개성미는 현대음악의 각분야에 고루침투되어있다.

작은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스트라빈스키는 대담한 기법과 원시적 바바리즘을 바탕으로한 충격적인 음악을써 1900년대 초기 세계를 놀라게했고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그는 신고전주의에서 꽃을 맺는동안 강렬한 리듬과 파괴된 화성, 그리고는 고전적 수법으로부터 러시아 민족음악을 거쳐 째즈음악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벌어나갔다. 러시아왕실의 전속 가수로서 오페라에도 출연한 바있는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적부터 음악에 접할수 있었던 그는 한때 법률공부를 한일도 있었지만 5인조중의 한사람이었던 관현악법의 대가「림스키 콜사코프」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의 특별한 지도로창작의 불꽃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것은 러시아 발레단의 단장「디아기레프」를 알게 되면서부터인데「디아기레프」의 요청에 의해 작곡된 발레곡「불새」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일약 그를 세계적인 예술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다. 그러나 두번째의 발레곡「페트르슈카」까지는 민족적인 그리고 낭만적 내용이 흐르고 있는 것이어서 스승인「림스키 콜사코프」의 영향하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문제는 제3작인「봄의제전」에서 비롯됨으써 20세기 음악사의 첫페이지를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1913년역시「디아기레프」의 요청에 의해 작곡된봄의제전은 리듬, 멜로디, 하모니등 모든면에서 종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음으로써 당시 빠리를 비롯한세계 음악계를 석권하고 있던 후기 낭만파 드뷔시일파의 인상주의 음악에 찬물을 끼얹었던것이다. 디아기레프의연출에「니진스키」의 안무 그리고 피에르몽토의 지휘로 초연된 봄의제전은 청중들의 야유와 조소 박수가 뒤범벅이된가운데 지휘자는 몇번씩 연주를 중단해가며 모든 비평은 연주가 끝난후에 해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스트라빈스키이후의 현대음악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음악은 세상에 내놓은지 5년여를 보내면서 그는 원시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에서 탈피 이번에는 미국흑인들의 재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시기의 음악으로「병사의 이야기」를 필두로 11개의 악기를 위한「래그타임」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째즈에의 몰입도 잠깐 그는 다시 관현악을 위한 8중주곡을 중점으로 신고전주의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고 1927년 영국에서 발간되는 음악전문지에서저 유명한「바하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함께 신고전주의에의 전향을 정식으로발표했던 것이다.

오페라「에디프스왕」「뮤즈의사자 아폴로」「시편교향곡」등은 이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며 1940년 미국으로 건너가 세상을 떠날때까지 신고전주의 노선을 지켜나갔다. 빠리 시대에 결혼한 러시아 태생의 부인은 화가였고 2남1녀의 자녀가운데 두 아들은 각각 피아니스트와 화가로 성장했다.

그의 말년은 빈고와 세금에 시달리어 자신의 물건들을 경매에 내어놓기도 했는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통해창작에몰두했다.

매일아침 벌거벗은채로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서 아침을 들고는 두대의 피아노와 벽에는 피카소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만이 걸려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창작에 열중했다. 그는 자신의 피아노 소리를 남이 듣는것을 싫어해 완벽한 방음장치를 했으며 산책을 하려해도 싸인을 얻으려는 사람들때문에 늘 집안에서 고독한 생활을 해야했다.

1964년 베를린 예술제에서 그의작품연주에 참가한 스트라빈스키는 베를린시민들로부터 연주전 기립박수를 받음으로써 최고의 예우를받았고 1971년4월9일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89세를 일기로 세상을떠나니 세계음악계는 거목을 잃은슬픔에빠졌고 바르토크 쇤베르크와더불어 현대음악사에큰 이름을 남기었던 것이다.

<음악 평론가>

FM방송에 바란다
KBS·FM및

이렇게 빌라

1965년 서울FM방송(상업)을 현 TBC(동양방송)가 인수함으로 시작된 한국FM방송의 역사도 짧지만은 않다. 이어 1970년엔 MBC가 부산FM, 71년엔 대구의 한국FM방송국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FM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FM이 처음부터 상업성을 띄게되었고 그래서 다분히 대중문화적인 음악에 선곡(選曲)의 우선권을 둘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FM의 정착화는 문제점을 지니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외국FM 방송국의 경우는 대체로 클래식과 light music(팝송, 대중가요등)의 비율은 8:2 정도인데(한국방송공사 자료제공), 기존 국내 FM의 민간 두방송국(MBC, TBC)은 오히려 그 반대로 70%이상이 light music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FM방송의 광고시간이 눈에띄게 는다는것은 갈수록 FM방송의 청취률이 늘고 있다는 반증일텐데, 그에 반해 방송국측의 성의는 기대 무망한 형편이다.

「제자리 돌기」음반을 내보내는 경우나 아무 코멘트없이 곡이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 까지도 적지않아 조금이나마 청취자를 의식한다면 방송으로 내보내기 전에 적어도 디스크의 상태를 한번쯤은 Check해 두는 것이 매스 미디어의 공익성에 부합되지않을까? 이런 민간 상업방송의 제 문제점을 시정하고 좀더 좋은 음악을 부담(PR)없이 청취자들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지난 4월 방송을 시작한 공영KBS-FM(93.1 MHZ)방송에거는 기대는 적지 않았다. Classic 음악을 80% 이상 방송하고 해설 또한 음악 전문가가 맡고있는 점등은 많은 Priority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특히 광고가 없어서 1~2시간 연주되는 오페라도 충분히 감상할수 있게 된 데에서 한국FM방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보완될점을 지적한다면, 시간의 제약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현재 그러나 아침 7시부터시작된방송이 오후1시까지 방송되고 다시 저녁6시 부터 자정까지만 방송되고 있는 현실에다가 하루 통틀어 12시간 방송에 더우기 저녁 방송은 아침의 재 방송을 들어야 하는 청취자로서의 불만은 적지 않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진행을 음악전문가인 교수등이 맡고 있어 관련곡의 해설등에 있어 아카데믹하고 상세한 해설을 들을수는 있으나 진행을 맡은 거의 전 교수들이 음악소개 도중 청취자를 도외시한채 기침소리등 제거되어야할 잡음들을 예사로이 마이크로 내 보내고있다. 이는 방송상식에 관한 일이라 생각되어 시정에대한 췌언이 필요치 않을것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방송에 관계치 않았던 탓인지 곡 해설과 진행이 너무 기계적이고 청취자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만한 여유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1일 연속방송이 빨리 실현되어 클래식 애호가들의 다이얼을 고정시켜 줄수있기를 바란다. <경>

기계적인 진행, 휴식의 여유 제공못해

향연(香煙)

정 인 숙

기드라니 빠치었단
허공에서 맴돌고
다시금 소스라쳐 돌아가는
자기재주에 계오사,
머리조아린 중생의 애달은 심사
모르는구려,

가시온님 달래려고
무트로 재거울린
제상(祭床)에
모다들고 올리는 일편주(一片酒),
님이어, 나서오소서
살아생전 못받으신 상(床),
일편주로 달래보는
해읍스름한 심정
받으소서,

이제 다시 새로와진
연(煙)의 말없는
속리는
어룽진 마음에 와닿는
무참한 형벌이구려。

아!
끝없이 타오르는
향연의 야속함이어
야속함이어,

<홍보학과·1>

장학금
사랑마루

격려 의미의 포상제도 좋을듯

김 영 연

내 나름대로 장학금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본다. 장학이란 문자 그대로『학문을 장려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장학금은 학문을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으로서, 학문추구에 대한 격려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이렇듯 순수한 뜻을 갖고있는 장학이 요즈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장학퀴즈』라든지 『××제과에서는 00名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드립니다』등, 실로 상업적인 도구로써 변신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전(以前)의 상아탑적인『장학』은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영업적인 의미의 『보상금』이라는 말초적인 의미가 확산되어 버렸다면 혹 나만의 신경과민일런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장학이 더 깊이 개전(改悛)하라고 격려하는 의도에서 출발되었다면「자기능력의 확인」즉, 장학증서 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능력의 우열을 가늠하는 상벌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상벌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교육—전체적인 인간형성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거창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은 결과로서 규정지을수는 없다고본다.

따라서 반드시 장학생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현 제도 대신에 서구의 교육제도와 같이 (정확한 실정은 잘모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가지 우수한 점을 더 개발시키고 격려해 주는 의미의 포상제도로 바꾸어도 좋을듯 하다. 그대신 장학금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주위에 학비조달이 곤란한 안타까운 학생들에게 돌리면 어떨지….

<이란어과 전임강사>

다음제목 : 동감
매 수 : 200자 4매
마 감 : 6월20일

은근한 기대와 불안의 순간

홍 경 미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기말고사 고비를 넘겨 방학이 끝나가면서 새학기가 시작될 참이면, 우리집 전화통은 불이 난다.

소위 수업께나 착실히 듣는다고 자부해온 몇몇 과(科)친구들이 한학기 성적을 물어오는 것이다. 그들은「장학금타기 대작전」이라도 벌이듯이 이번에는 또 학교교정에서 보자마자 바싹 다가서서는 평점을 운하는 식으로 묻는것이다.

그럴때면 대학에 들어온 의미가 한순간 이「장학금」을타는데에 집약되어져, 대학의 의미를 누려보기 위해선 겨우 B기 넘는 성적표를 움켜쥐고, 장학금수혜신청자 명단에 비비적대고 끼어보아야 할듯한 착각에 빠지곤한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서로가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오랜기간동안의 생활이야기를을주고 받으며, 새학기의 인사를 나누는 대신에 만나는 순간에 나의 얼굴이 일군(一群)의 친구들에게는 붉음표가 찍힌 내 성적표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이 일어나겠거니 생각하면 마음은 반갑기보다는 되려 씁쓸해지기조차 하는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장학금이란 흥분할만한 일이기도 하다. 장학금을 타게되면 더욱 좋은일이지만, 그 명단이 발표되기 전의 그 아슬아슬한 감정은 참 희한한 것이다. 특히 될듯말듯한 선에 걸려 누구아니면 누구 할때의 그 은근한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마음을 누르면서 억지로 침착한체 가장해야 할때는 참으로 야누스적인 나의 얼굴이 야박스럽기조차하다. 이렇게 한차례의 장학금선풍이 지나가고나면 나름대로의 반성이 생기게되고 장학금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된다. 이미 스스로「장학금면제」를 부르짖으며, 성적과 장학금이란 함수관계를 초탈한 일부 해탈파도 있긴 하지만.

<중국어과·4>

얼쑤! 좋다! 흥겨웠던 탈판

——탈춤「고성오광대」를 마치고

두 달간의 연습을 거친 후 지난 6월1일 오후5시 반에 고성오광대를 탈판에 올렸다. 우리 학교에서 고성오광대는, 1877년9월28일에 선배님들이첫 공연을 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 올리는 탈판이였다. 고성이 에경남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격차 때문인지 서울 대학가에선 자주 볼 수 없는 탈춤이 되어 왔었다. 올해도 서울에선 본대학에서 유일하게 고성오광대를 탈판에 올리게 되었다. 그러니만큼 다른 공연때 보다 알찬 공연이 되어야겠다는 집념이 전 반원들을 뭉치게 했던것 같다.

두 차례의 현지 전수 활동과 두달간의 연습이 있은 후 공연 나흘전에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을 초빙, 마지막 지도를 받았었다. 공연에 들어가기전, 춤부문에 있어서는 그리 크게 걱정되진 않았었다. 다만 그날의 일기와 관중들의 호응도에 약간 염려가 되었었던것같다. 막상 공연 날짜가 되자 모든 회원들은 그동안의 연습과정에 지쳤는지 약간 피로한 기색들이었다. 공연에 대한 마지막점검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지쳐있는 것같아 불안했으나, 관중들이 차츰 모여들자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더우기 길놀이를 떠났을 때 탈꾼들의 표정은 한층 더 밝아지기 시작했다. 길놀이를 끝내고 탈판에 들어서서 고사를 지낼 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관중들의 장난이 없지가 않았었다. 물론 탈판에 있어서 관중들의 참여의식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고사는탈춤을 추기전에 있어서 가장신성시되는 일종의 의식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관중들의 양식있는 행동이 다소 아쉬웠다고 하겠다. 탈춤이 연희되었을 때 관중들에 힘입은 탈판 분위기는 더욱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마 탈춤이 전통문화란점과 전체 관객들이 우리 것을 찾고 이어나가자는데 대한 본능적인 향수와 잠재의식 발현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관중호응도 좋았으나——
양식있는 관람태도 아쉬워

막걸리 한 잔 걸치지 않은사람도 탈판에서만은 술 한잔이 된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 또한 탈춤 특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 과장 5과장을 통해 동적인 춤과 정적인 춤,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호응해 나가는 관중들의 태도엔 정말 갈채를 보내고 싶었다.

공연이 끝난 뒤 빈 탈판에 섰을 땐 약간의 허무함도 있었지만 그 허무함 보다는 그 공연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것을 배웠다고 생각할때 가슴깊이 뿌듯한 감을 느낄수 있었다.

김기흥 <G·2가면극연구반>

신간서평

「동(東)과서(西)」
박명석지음
탐구당 발행

저자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연구의 목적이「동서간의 의식구조 내지 문화적 패턴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있다고 본문에서 밝히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패턴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과 가치 기준의 차이를 살펴 본 다음 언어 구조를 통해 본 사고 패턴과 비언어적 행동 양식의 차이점을 상술하는 데」주력하고 있다.

서(序)에서는「아시아 정신과 서구적 인간관」이 논의되고있다. 저자는 가장 보편적인 아시아의 사고 방식을 화합(和合) 특히 자연과의 화합이라고 규정하고, 서구의 개인 주의가 서구인의 자연환경과의 투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I부에서 취급되는 것은「동서간의 의식 구조 내지 문화적 유형의 차이」다.

1장에 명시된 연구의 범위는 서구와 비서구이고, 범위를 좁히면 한국과 미국이 된다.

2장에서는「동서의 의미와그 구분」이 다루어지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 문화의 특징이 이익 사회라면 비서구 문화의 특징은 공동 사회이다. 서구인은 분석적 사고방식을 가진 데 반해 동양인은 상관적사고 방식을갖는다. 서양의 분별지는 분석적이고, 동양의 지혜는 직관적이다. 또 동양의 자연과 서양의 자연,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가 대비 논의되고있다.

3장에서는「한국과 미국」을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풍토를 중심으로 논하고있다.

4장에서는「한미의 문화적패턴의 유형」을 가정과 가치기준을 중심으로 논하고있다.

II부에서 다루어지는것은 5장의「언어 의식의 동과 서」6장의「말로써가 아닌 의사소통」7장의「결론:인간의·유사성」이다.

저자는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사례를 제시하여 여러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이 본서의 한 특징이요, 강점이다. 설득력 있고 평이한 문장 또한 본서의 특징이다.

본서는 언어학과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에게 좋은 책일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도 좋은 교양 서적이 될 수 있다. 지식인이면 한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남 성 우
<한국어교육과·부교수>

「여수상(女首相)대처」
조지·가디너 지음
정 연 권 역
전 예 원 발 행
값 1,800원

대처수상의 전기인 이 책은 대처여사가 걸어온 생의 과정—오랜전통과 계급의식이 뿌리깊은 영국사회의 평범한 서민가정인 식료품가게의 딸로 태어나, 부유한 귀족 자녀들이 대부분인 명문 옥스포드대학에들어가 보수당 학생회장이 되고 하원의원선거에 도전하여 실패한후 굽힘없는 도전과 집념으로 59년 하원에 당선, 보수당 야당내각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히스를 누르고 당수로 선출, 마침내 영국수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소설이상의 아기자기함과 강인한 의지로 점철된 도전과 성취를 생생히 그리고있다.

자유의 회복이라는 영국보수당 이념에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영국병」이라는 일종의 사회적병리를 가진 사회에 내리는 진단과 처방의 과정에서「철(鐵)의 나비」라 불리운 것은 대처의 정치적 이상과 투철한 신념을 지닌 정치가로서의 품격을 나타내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할수 있겠다.

조지·가디너의 원작품은 소녀시절부터 보수당 당수로 피선될때까지 총6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역자인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정연권씨가 런던 현지에서 대처여사를 실제로 접하며 보고 들은것을 토대로 당수이후 새 수상이 탄생된 부분까지를 새로 써 7장「여 수상의 미소」란 제하(題下)로 덧붙이고 있다.

제1장「유럽사상 최초로 태어난 여성당수」에서는 1975년 2월11일 보수당의 여성당수가 탄생하는 과정과 그 전후의 대처의 모습을 당시 하원의원으로 있던 저자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제2장「그랜샴에서의 소녀시절」, 제3장「옥스포드의 청춘」, 제4장「아내, 어머니, 그리고 직업여성으로서」, 제5장「열정에 불타는 하원 의원」, 제6장「수상의 자리를 향하여」로 엮어져 있으며, 또한 대처의 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52점의 사진이 16페이지의 화보와 함께 실려있다.

저자 조지·가디너는 현재 보수당소속의 2선 하원의원이다.

원고 모집

본보에서는 문화면에 실을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성의있는분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시 : 매수제한 없음
수필 : 7~8매 200자원고지)
콩트 : 8매내외 (〃)
작가론, 작품론 : 15매내외
문화시론 : 7매내외

높이 날수록
보다 먼곳을 볼수 있읍니다.

뜻이 높아야 이루는 일도 큽니다.
젊음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國際商事그룹은
젊음이 스스로 飛翔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세계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읍니다
높이 나는 새가 보다 먼곳을 볼 수 있듯,
젊음의 뜻은 높고 커야 합니다.
우리 기업 30년은 수많은 젊음이 이룩한 창조,
그리고 도약의 의지가 쌓아올린 보람의 역사입니다.

國際商事그룹
ICC GROUP

國際商事株式會社
ICC CORPORATION

聯合鐵鋼工業株式會社 國際紡織株式會社 國際綜合建設株式會社 東海投資金融株式會社 國際商船株式會社 聯合物産株式會社 豊國化學株式會社 東宇産業株式會社 國際通運株式會社 國際綜合엔지니어링(株)
東西證券株式會社 三洋覺平株式會社 國際綜合機械株式會社 寶高産業株式會社 國進企業株式會社 朝光貿易株式會社 新東製紙工業株式會社 成昌纖維株式會社 國際土建株式會社 國際製鐵株式會社

■ 海外支社 : NEW YORK, LOS ANGELES, CHICAGO, TORONTO, PANAMA, BUENOS AIRES, SYDNEY, OSAKA, BANGKOK, HONG KONG, MANILA, JAKARTA, LONDON, PARIS, DÜSSELDORF, GÖTEBORG, CAIRO, LAGOS, TEHRAN, AMMAN, BEIRUT, KUWAIT, DUBAI, JEDDAH JOHANNESBURG.